

# 진각종, 스리랑카 현지 포교 팔 걸었다

국민 전체의 70%가 불자인 나라 스리랑카에서 진각종(통리원장 회장)이 11월 28일 의미있는 두 가지 행사를 개최했다. 회당학회가 켈레니아대학교 불교팔리대학원에서 주최한 '제4회 국제학술대회'와 넬콤보 진각복지센터(JGO) 부설 유치원에서 진행된 졸업식이다.

진각종은 이번 학술대회를 한국과 스리랑카 불교의 유사성, 특히 각국 밀교의 뿌리를 조명하고 각국의 활발한 불교학 연구를 위한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했다. 또한 2004년 개원한 넬콤보 진각복지센터(JGO) 부설 유치원은 지난해에 이어 두배가 증원된 1백여명의 졸업생을 배출하는 쾌거를 이뤘다. 진각종이 스리랑카 포교에 적극적으로 팔을 걷어붙이며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본격 나선 것이다.

## 진각종 회당학회, 스리랑카서 국제 학술대회

### “밀교 번성 흔적 탄트라 새긴 유물서 확인” “바닷길로 전파”...양국 불교 유사성 조명

'제4회 국제불교학술대회'를 시작하며 대회장인 혜정 정사는 개회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한국불교와 스리랑카 불교의 유사성을 찾고자 열었다"며 "이 학술대회를 계기로 켈레니아대학교 불교팔리대학원과 한국 정부 밀교종단인 진각종 회당학회 사이의 만남이 보다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사나 필리파카르나 학장(켈레니아대학교 대학원 불교팔리학과)은 "스리랑카는 초기불교를 비롯해 모든 시기와 형식을 아우르는 불교학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가 한국불교를 알고 스리랑카 불교를 발전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남인도의 대승불교와 밀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회당학회장인 혜정정사가 '남인도에서 금강지와 불교의 활동'을 주제로 발표한 것을 비롯,

'스리랑카에서의 밀교'(에머리투스 켈레니아대 교수), '해로를 통한 밀교문화의 전파와 특징'(신상균 위덕대 교수·무의 정사), '초기불교와 밀교의 상호관계성'(올리버 아베나야카 켈레니아대학교 팔리대학원 교수), '진인의 형성에서 파타라의 역할'(진각대 허일범 교수), '스리랑카에서 밀교발생의 배경 요인'(나비리탄카다와라 켈레니아대 교수) 등 6명이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첫 번째자로 나선 혜정 정사는 "부처님 열반 후 수행자들 사이에 많은 문제가 나타났고 결집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으나 이같은 전통이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는 마지막 방편이 비로자나불의 가르침인 밀교"라고 밀교 성립배경을 설명했다.

혜정 정사는 또 "중국에 밀교를 전하고



진각종은 11월 28일 스리랑카 켈레니아대학교 불교 팔리대학원에서 '제4회 국제학술대회'를 열고 밀교의 뿌리를 조명했다. 사진은 회당학회장 혜정 정사가 주제발표하는 모습.

초석을 닦은 이는 금강지와 불교으로 이들의 고향인 집사자국(지금의 스리랑카)은 밀교경전결집을 회향한 장소이기도 하다"며 "집사자국이 밀교의 발생지에 속하는 예로, 현재 스리랑카에서 발표할 때 석가모니불만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28불의 명호를 부르는 것과 밀교의 만다라형 사원건축이 많은 것을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무의 정사(위덕대 교수)도 주제발표를 통해 중기밀교가 전파된 근거를 인도네시아 자바의 대표적인 유적 '보로부두르 대탑'과 밀교의 전래승인 금강지(제5조) 불공상장(제5조)의 활동에서 찾을 수 있다고 발표했다.

무의 정사는 또 "해로를 통해 밀교가 전파되는데 인도네시아 자바와 수마트라섬이 중계지였다"며 "보로부두르 대탑은 자바의 밀교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자료임과 동시에 만다라도의 입체화라는 주장도 있다"고 설명했다.

올리버 교수도 "부처님은 의식과 의례의 중요성을 언급했으며 이는 초기불교가 밀교와 상호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라고 말했다.

또 나비리탄카다와라 교수는 "스리랑카에 밀교 사상을 소개한 담마푸지는 밀교 교단으로부터 발전했고 인도의 팔라라마로부터 스리랑카에 밀교를 전파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에머리투스 교수는 '스리랑카에서의 밀교'를 주제로한 발표에서 "일부에서는 12세기에 스리랑카 전역에 밀교가 번성했다는 학설을 부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밀교의 번성 흔적은 탄트라가 새겨진 탑과 탄트라적 불상, 불교건축물을 통해 찾아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 “밀교 아우른 학술연구 전념”

**interview** 켈레니아 불교팔리대학원 아사나 학장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밀교와 대승불교, 소승불교의 전통을 아우르는 학술적 연구에 전념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켈레니아대학교 불교팔리대학원 아사나 학장(사진)은 국제학술대회 후 가진 인터뷰에서 "학술대회를 계기로 밀교까지 아우르는 폭넓은 연구에 전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각종을 한국의 대표적인 밀교종단으로 알고 있다는 아사나 학장은 내년엔 한국에서 근무한다. 연세대학교 불교사회학 교편교수로 재직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켈레니아대학교 불교팔리대학원은 1875년 승가대학으로 시작해 1959년 영국학제를 받아들여 현재 불교 관련 대학중 최고 핵심대학으로 인정받고 있다.

켈레니아대학교에는 현재 7000명의 재학생이 있으며 불교팔리대학원에는 300명이 수학하고 있다.

대학원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불교팔리대학원에는 60명이 박사과정을 밟고 있으며 100여 명의 외국학생 중 한국학생 10명이 공부하고 있다.

콜롬보=김주일 기자

## “잠자는 밀교 깨우는 계기로”

**interview** 진각종 회당학회장 혜정 정사

"스리랑카의 문헌적 밀교를 드러내고 잠자는 밀교를 깨우고 싶습니다."

11월 28일 스리랑카 콜롬보 켈레니아 국립대학 불교대학원에서 열린 '한국-스리랑카 불교국제학술대회'를 연 진각종 회당학회장 혜정 정사(사진)는 이번 학술대회 의미를 이렇게 밝혔다.



혜정 정사는 또 "스리랑카 불교가 소승불교로 잠들러진 부분을 연구를 통해 밝히고 싶었다"는 "한국의 회당학회와 켈레니아 불교팔리대학원과의 문학적 학술적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불교적 학문과 수행의 성과로 공유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회당학회는 지난 2000년 한국에서 몽골, 일본, 인도 학자 등이 참여한 제1회 국제학술대회를 시작으로 2회 중국(시안 법문사), 3회 일본(고야산)에 이어 올해 스리랑카에서 4회째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회당학회는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통해 밀교학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콜롬보=김주일 기자

## JGO센터 부설 유치원 최고 시설·프로그램 자랑 2회 졸업생 100명 배출

진각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스리랑카 JGO센터 부설 유치원(원장 겸 지부장 무이)은 11월 28일 '2006학년도 졸업식'을 봉행했다. 이날 100명의 졸업생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어린이가 되겠다는 유치원 졸업을 아쉬워했다.

JGO센터 부설 유치원은 경제적 문제로 배움의 기회를



JGO센터 부설 유치원은 11월 28일 2006년도 졸업식을 거행하고 1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가지 못한 현지 어린이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교육 공간으로 현대식 교육을 시키고 있는 스리랑카의 몇 안되는 유아교육기관이다. 회정 정사(진각종 총무부장)를 비롯해 호당(문사부장)·지정 정사(재무부장) 등 한국대표단과

유치원생 학부모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열린 졸업식은 환영식 점등식 인사말 치사 축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정 정사(총무부장)는 치사를 통해 "어린이 여러분들은 스리랑카의 희망찬 미래"라며 "유치원에서 배운 것처럼 늘 정직하고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 스리랑카의 큰 기둥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운영된 스리랑카 JGO센터 부설 유치원은 2005년 1월 정식 개관해 그해 12월 5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2006년부터는 정원을 기존의 50명에서 100명으로 늘려 넬콤보 가파나시 지역 아이들의 학교 입학전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넬콤보 지역 최고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자랑하는 유치원으로 자리매김한 JGO센터 부설 유치원은 2006년 2월에는 한국국제협력단과 NGO지원 사업 약정을 맺기도 했다.

스리랑카 넬콤보=김주일 기자

### 토황토 배짚질기

**제품구조설명**

- 원적외선세라믹보드
- 황토세라믹 물
- 열선
- 단열재
- 온도과열방지장치
- 전기휴즈
- 케이스
- 용사계

**토 황토 배짚질기의 특징**

- 국내 최초 속열식 배전용량질기
- 제품사용의 편리성
- 직접가열 속열식 충전시스템
7. 저렴한 전기료
- 고 기능성 황토를 사용
8. 인체 공학적인 설계
- 원적외선 이중방사
9. 전기안전된 제품 설계
- 사용 시 유해전자파 무

전화 주시면 즉시 물건을 받아 보시고 충분히 검증 후 결정하십시오.  
**100% 환불 보장**

**속배게**  
배새끼 속항을 맡으며 꼭 주무십시오.

• 규격 : 가로 55cm × 세로 35cm

머리가 잠기지며 피로감이 사라져 몸이 참게 됩니다.

지리산 자락에서 아들 머느리와 함께 웃 짓고 물영하며 사시는 맑고 밝은 김순옥 보살님의 솜씨입니다.

---

**초특가!! 1+1+1+1=4개를 98,000원에 드립니다.**

**조계종 9대 종정 크스님 친서화 부자되라는 글**

• 규격 : 가로 29cm × 세로 24cm

\* 금강도금, 고급 양장 케이스  
\* 단체 주문시 보시 가격에 드립니다.

**돼지 액자**

불자님 각 가정마다 행운을 기원하며 큰 스님께서 친히 내리신 친서화입니다.

내년은 정해년 돼지해 내년은 100년만에 찾아온 금돼지 해입니다.

**속방석**

천원 우리속 100% 천연 황토물림 속항이 가득합니다.

• 규격 : 가로 50cm × 세로 50cm × 높이 5cm

- 오래 앉아 있어도 땀이 차지 않고 머리가 개운하며 머리가 참아줍니다.  
- 30여만 앉아 있어도 방안에 속항이 가득하며 실내의 공기청정기가 됩니다.  
- 열역순환을 돕고 발한작용을 촉진시키고 심신 안정에 좋습니다.

**웃 큰마을 사람들**  
전남 순천시 석현동 896번지  
주문전화 : 061)755-4879  
농협 : 601063-52-099899 예금주: 박미숙

법회 참석 대중의 일체감과 효율성을 높이는 필수 교보재

## 법요집 · 기초교리집 과도 특별신청 보급!!

**법 요 집**

정기법회, 수련대회, 불교대학, 불교학교 등 법당에 걸어 비치만하셔도 법회의 원활한 진행은 물론 신도님들의 불교기초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법요집
  - 삼귀의
  - 천왕합시다
  - 반야심경
  - 입정
  - 청법가
  - 법문
- 정근
- 발원 및 축원
- 사홍서원
- 선회가
- 기탄찬불가

**기 초 교 리**

- 불교란?
- 부처란?
- 대승과 소승의 차이
- 사찰에서 쓰는 도구
- 사찰경내 예법
- 합장과 반배
- 고두례
- 예문본
- 상보
- 삼귀의
- 삼경의
- 삼법
- 삼학
- 신도오계
- 사성제
- 사성법
- 십이인연
- 육바라밀
- 팔정도
- 보왕삼매론

법회의 일반적인 순서와 불자라면 꼭 알아야 할 기초교리가 담도 크스님의 김수로 알차게 꾸며져 있습니다.

• 특별보급가 : 140,000원 (한정수량판매)  
40쪽, 아이보라색 레자크지

• 구성 : 과도(법요집, 기초교리, 양면인쇄) 1개  
겉이대, 지시봉

인터넷 불교 종합 서점  
**여시아문** 02)737-0695  
02)2004-8215, 8219  
국내 · 해외불교서적, 교양도서 http://www.yosiamun.com